

광주시·전남도 “수돗물 아껴 쓰세요” 절박한 호소

市, 수도급수 조례·시행규칙 개정 절수 가구에 최대 13% 요금 감면 道, 11월 전년동기 대비 7% 절수 농업·공업용수 확보에도 총력전

광주·전남이 지독한 가을·겨울 가뭄 극복을 위해 수돗물을 크게 줄인 세대에 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등 물 절약 운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광주시는 수도급수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까지 수돗물을 아껴 쓰는 가구에 최고 13%까지 요금을 감면해줄기로 했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물 절약에 이끌어내기 위해 절감액만큼 수도요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난 11월 사용량부터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수돗물을 10% 절감하면 10% 할인해주는 방식이

다. 특히 절감률이 10% 초과에서 40% 이하일 경우 최고 13%까지 감면율이 늘어난다. 전년 동기 20㎥를 사용한 가구가 올해 10%를 절감하면 3230원(2만2770원→1만9540원), 20% 절감하면 5510원(2만2770원→1만7260원)을 감면된다. 상수도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작년과 올해 11월분 수도계량기 검침 값을 비교해 절감률이 발생하면 내년 1월분 수도 요금 납부 고지서에 요금 감면액이 반영된다. 그동안 요금 납부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에 감면해주는 사례는 있었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수돗물 절약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전남도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절수로 지난 11월 한 달 간 11만t이 넘는 물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처럼 절수 효과가 크자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물 절약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강조했다. 11월 전남

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 달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생활용수는 1일 6만3000t(7.8%), 공업용수는 1일 5만t(7.4%)의 절수 효과를 보였다. 지난 11월 1일부터 전남도는 물 절약 TV광고를 제작해 공중과 방송 저녁 시간대에 송출하고 있으며 ▲재난 문자 발송 ▲누리소통망(SNS) 홍보 ▲민관합동 현장 캠페인 ▲플래카드 ▲전광판 ▲이동장치의 등을 통해 물 절약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도민들이 이 같은 전남도의 움직임에 동조하면서 수돗물을 아껴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9일 가뭄대책상황보고회에서 실국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도내 기업의 물 절약 동참을 계속 홍보하고, 생활용수 절약 시 수도 요금을 감면해줄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도민들이 보다 물을 아껴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검토하라는 것이다. 또 영장강 수계를 넘는 등의 농업·공업용수 확보방안 마련도 당부했다.

지난 9일 현재 전남지역 주요 상수원인 주암·수어·평림댐 평균 저수율이 34.6%로 ‘심각’ 단계이고,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도 49.0%로 평년 대비 79.8%에 그치고 있다. 가뭄이 장기화하면 식수난 및 공업용수 부족, 농작물 피해 등 도민의 불편과 고통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가뭄 피해가 극심한 완도군 12개 읍면 중 금일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4개 읍면 5개 섬 지역에서 제한급수를 시행 중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가뭄이 심각한 완도와 신안에 병목 공급, 급수차 운반 등 응급수 공급대책을 추진했다. 농작물 가뭄 극복을 위해서도 관정개발, 배수로 준설 등 농업용수 개발비 54억원을 지원했다. 이와함께 기업 후원, 재난관리기금 투입, 구호단체 협력 등을 통해 총 45만 명의 병물을 확보, 제한급수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영암·해남 관광레저 기업도시 솔라시 진입도로 개통 투자 촉진·조기 활성화 기대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 솔라시도의 접근성 향상과 지역 주민 편의 증대를 위해 추진한 진입도로가 지난 9일 오후 5시 전면 개통됐다. 개통식은 김영록 전남지사,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명현관 해남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지역구 도의원, 군의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는 해남 산이면 대진리에서 영암 삼호읍 서호교차로(IC)를 연결하는 총연장 12.19km, 4차로 신설 도로다. 총사업비 3155억원을 들여 2015년 12월 착공해 총 공사기간만 7년이 소요됐다. 지난 2월 지방도 801호선으로 지정 고시되고, 6월 ‘솔라시도로’로 광역도로명이 부여됐다. 주요 시설물은 영암호를 가로지르는 연장 2.2km의 더블리브라이치교인 솔라시도 대교 등 교량 5개소, 평면 및 입차 교차로 5개소다. 이번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통으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남해 고속도로에서 무안 남양, 영암 삼호도심지를 거치지 않고 솔라시도 기업도시 접근이 가능해져 기존 40분에서 30분으로 10분 정도 단축돼 투자 촉진 및 조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여기에 인근 해남, 완도, 진도 등 지역 주민의 교통 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김영록 지사는 “진입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개선된 만큼 앞으로 기업의 투자가 더욱 늘 것으로 기대되고, 그만큼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세계 제일의 미래도시로 우뚝 서는 날도 빨라질 것”이라며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전망이 더 멀리 더 높게 도약하는 든든한 밑거름이자 탄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빛고을 사랑나눔 김장대전’ 김치 181t 판매

46개 기관·단체 참여 김치 나눔

광주 빛고을 사랑 나눔 김장대전에서 181t, 10억9천만원 상당 김치가 판매됐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김치 타운에서 연 김장대전에는 지난달 22일부터 1022 가족이 참여해 사전 주문한 절임 배추와 양념으로 현장에서 김치를 담갔다. 46개 기관·단체는 직접 버무린 김치를 어려운

이웃, 소외계층과 나눴다. 판매 물량 중 62t은 경기, 경상, 충청, 제주 등 3700여건 주문을 통해 배달됐다. 행사에서는 세계김치연구소, 김치 축제 대통령상 수상자들이 개발한 조리법으로 김치를 담갔다. 배추는 물론 신안 천일염, 함평 고춧가루, 여수 멸치액젓 등 남도에서 생산된 재료를 공동구매해 시중보다 가격도 저렴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추위 녹이는 구세군 자선냄비 11일 광주시 동구 충정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한 어린이가 자선냄비에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구세군 성금활동은 24일까지 계속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남도,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 전국 1위

5748곳으로 전국 44% 차지 일반음식점 3930곳 가장 많아

대한민국 김치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전남의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 실적이 5748개소로 전국(1만3037개소)의 44%를 차지하며 2년째 전국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11월 전남도에 따르면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음식점, 학교 등 단체 급식소, 기업체, 병원 등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인증마크를 부착해 소비자가 음식점 밖에서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소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지난해 국산김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남도는 신청·접수,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대한민국 김치협회)는 서류와 현장심사, 심의·결정, 사후관리를 담당하기로 협약해 첫 시행해 전국 확산을 주도한 민·관 협업형 사업이다. 사·군별 지정실적은 여수시가 716개소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고 이어 순천시

526개소, 광양시 520개소, 목포시 458개소, 해남군 399개소 순이다. 유형별로는 일반음식점이 3930개소로 가장 많고, 이어 유치원·어린이집을 포함한 학교가 1626개소, 공공기관과 기업체, 병원 등 단체급식 185개소, 휴게소 7개소 등이다. 관광지 주변 남도음식 거리도 상당수 참여했다. 거리별로는 영광 범성포골비거리 34개소, 순천 옷장국밥거리 20개소, 장흥 토요(한우)시장 25개소, 무안 빨낙지거리 19개소, 해남 닭요리 거리 8개소 등 272개소에 달한다. 또 음식점의 국산김치 사용을 장려하고 지속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자율표시제를 지정받은 3930여 음식점에 식자재 구입비 12억원(업소당 25만원)을 지원한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정책관은 “최근 김치가 코로나19 예방과 면역 증진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며 “안전성이 검증돼 믿을 수 있는 영양 만점의 국산김치 소비촉진 운동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최저임금법 피소 박미정 의원 “징계 대상 아니다” 결론 광주시의회 윤리특위

광주시의회는 전직 보좌관으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박미정 의원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위원회 회의를 열어 박 의원의 징계 대상 여부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벌인 결과 “징계 대상이 아니다”고 결정했다. 박 의원은 올해 2월부터 3개월간 자신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A씨에게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조사 결과 ‘혐의없음’ 의견으로 관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시의회 윤리특위 심사위원회도 최근 “징계 대상이 아니다”고 결론 내렸고, 윤리특위 역시 “자문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규정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징계 대상 아님’ 결정을 내렸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	----------------------------	--------------	-----------------------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안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